

#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의 위험요인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isk Factors and Juvenile Delinquency

박선아\*, 이미림\*\*, 최재영\*\*\*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늘사랑교실 지역아동센터\*\*\*

Sun-Ah Park(legend88@hanmail.net)\*, Mi-Rim Lee(mirimruchia@naver.com)\*\*,  
Jae-Young Choi(house002@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복지시설 청소년의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한편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비행행동 사이에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비행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둘째, 학교 환경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도 청소년 비행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자아탄력성이 개인적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행동 간의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시 학교 환경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행동 간에서도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결과처럼 자아탄력성은 청소년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행동 간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험요인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어느 정도 비행행동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청소년비행 | 위험요인 | 자아탄력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hether ego-resilience shows mediating effects between risk factors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data was conducted by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of risk factors and ego-resilience on subordinate variable of Juvenile Delinquency were significant. Second, the personal risk factors and ego-resilienc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Juvenile Delinquency, and ego-resilience showed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 personal risk factors and Juvenile Delinquency. Third, school related risk factors and ego-resilienc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Juvenile Delinquency, and ego-resilience showed mediating effects between school related factors and Juvenile Delinquency.

■ keyword : | Juvenile Delinquency | Risk Factors | Ego-resilience |

\* 본 연구는 최재영의 박사학위논문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연구하였음.

접수일자 : 2014년 07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7월 29일

수정일자 : 2014년 07월 28일

교신저자 : 이미림, e-mail : mirimruchia@naver.com

## I. 서론

청소년기는 삶의 전 생애 중 가장 많은 위험과 기회, 좌절과 성취를 체험하는 시기로 전 생애적인 인간의 발달을 위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은 단순히 나이를 먹고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정체감과 주체적인 가치관이 정립되는 가운데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내면적 혼란과 갈등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청소년은 성적우선주의, 대학진학 등에 의해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음란물과 폭력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부적응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까지도 초래되고 있다. 특히 부적응 문제에서 발생하는 청소년기의 폭력이라는 비행은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됨으로써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 비행이 단순히 부적응적 행동을 넘어, 날이 갈수록 범죄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비행이 양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저연령화, 지속화, 재범죄화, 성범죄, 사이버 범죄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1]. 청소년백서(2012)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전체범죄에서 청소년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범죄 연령도 16세가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14세 이하 소년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저연령 소년범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예방과 재범방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이 시급한 상태이다[2]. 더욱이 청소년 비행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문제행동이 심각한 비행으로 드러난 시점에서는 이미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 습관화된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3], 결국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의 독립 및 자율과 성숙으로 이동하는 단계인 만큼 이 시기의 일상화된 비행은 신체적 및 심리적 발달과 사회화 등 청소년기에 이뤄질 성장기적 과업성취를 저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폭력 등의 부정적인 행동은 심신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범법행위로 발전되면 어린나이에 사회

로부터 격리되는 심각성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초기에 경험하는 청소년 비행이 범죄화, 재범으로 연결되어 청소년 개인을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부담과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점관점 차원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적응 능력으로 최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 언급되고 있다[4][5]. 정신건강 차원에서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는데[6][7], 이는 청소년기에 겪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비행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비행을 유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규명되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가하는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인 원인이 중요하기에, 자아탄력성과 같은 청소년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될지라도 보다 근원적인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에 알맞은 융통성과 문제 해결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8],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과정이자 능력을 의미한다[9].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하는 능력이고, 외적·내적 긴장원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10]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 즉 '환경에 따라 자신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비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비행이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의 비행유형[11-13], 비행예방에 있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규명[1][3][14][15], 자아탄력성

이 자살이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5][7][16-18]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계연·이은희(2007)[19]는 문제행동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국한되어 연구되었고, 비행행동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시설 청소년의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위험요인 상황에서 문제행동을 줄이고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중재역할을 하는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비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비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와 유의미성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 자신이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통제하고 비행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는 예방차원의 실천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의 의미는 연구자마다 상이한 용어로 선택되고 있다. 주로 청소년 비행(delinquency), 청소년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청소년 범죄(crime), 청소년 일탈,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는 행위가 위법인지의 여부와 비록 법은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과 청소년 비행은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13][20].

청소년 비행은 법률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청소년에 의해 행해진 범죄로서 문제행동 전체를 대변하고 있으며, 용어에 따라서 내용과 의미도 다르고 단순한 법규범 위반 외에도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이란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가출, 무단결석과 같은 지위비행으로도 구분하고 있다[21][22].

한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신체적·심리적 성장과 발달에서 오는 특성과 과업 및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질풍노도로 표현될 만큼 생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겪으면서 쉽게 흥분하고 자극에 쉽게 흥분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매사에 욕구불만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20]. 이 시기의 자아중심적 사고나 지나친 자의식, 주관성, 민감성, 자아정체감의 혼란은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12].

더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23]이 있는 청소년 비행은 가정이나 또래 집단과 같은 사회 맥락적 요인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성적위주의 학교분위기, 치열한 대입입시 등 우리나라의 학교 및 사회 환경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고, 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청소년의 컴퓨터중독, 흡연, 음주와 같은 부정적 행동도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관습이나 규범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학교,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개인적 특성이 비행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12][24]. 또한 자의식이 형성되고 주체적인 가치관이 성립되며 인지적 사고의 변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면서 부적응적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의 취약성도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12].

### 2.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

청소년기 비행과 관련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인 가정, 학교, 또래 및 지역사회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25]. 청소년 비행에서 위험요인이라 한 개인이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특성 및 변인을 말한다[26]. 위험요인은 부적응적인 발달 산물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들로서 특정 장애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 다루기 힘든 기질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과 스트레스 정도나 큰

외상성의 생활사건이나 만성적인 빈곤, 역경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한다[3][27]. 그리고 위험요인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환경 중에서 발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위험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괴로움과 같은 스트레스와는 구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14][28].

그동안 청소년의 위험요인은 청소년기가 전 생애적인 인간의 발달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보호요인과 함께 연구되었다.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패러다임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문제와 정서 및 행동문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보다 적응적인 발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위험요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행 예방의 방향성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29], Coie 등(1993)[30]과 Hawkins, Arthur and Cartalano(1995)[31]도 청소년 비행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변인들을 위험요인으로 명명하고 이것을 청소년 예방 전략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14].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은 청소년 개인, 가족, 학교·지역사회 차원에서 비행과의 관련성이 규명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변화 및 개입 가능성 차원에서 개인과 학교환경의 위험요인을 고찰하였다. 먼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우울, 충동성, 반항성 자기합리화, 비합리적 기대, 반사회적 성향,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우호적 태도, 불안, 모험심, 공격성과 같은 기질과 성향, 종교적 신념과 같은 요인이 있다. 그리고 협박이나 강제적인 성관계 경험,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비행행동에 관여, 모임에 가입, 초기 지속적 문제행동, 학업실패경험과 체격 및 외모도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학교환경의 위험요인으로는 또래친구들과의 비행 유대, 학교 내 낮은 학업 성취도, 교사의 애정정도(교사 차별), 학교전학횟수,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에서의 이상행동,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낮은 참여가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15][28][31-36].

한편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들에서는 위험요소와 청소년의 비행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37], 김태균(2007)[1]은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에서 가족친밀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학교위험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 때 가족친밀도가 조절(중재)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청소년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이다[17][38]. 탄력성(resilience)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이며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Rutter(1985)[37]와 Garmezy(1981)[39]는 환경적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아동의 특성에 기초하여 탄력성(resilience)을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5][40].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개인 내적인 능력으로서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적응적 자원이며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38][41]. 또한 광의의 개념으로는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표출하지 않으며 성공적인 적응을 도모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7][42]. 그리고 긴장과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탄력성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44].

최근 들어 자아탄력성은 탄력성, 적응유연성, 혹은 회복력 등의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으며[7][44][45],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에 덜 민감하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적절한 자기통제를 가지며, 상황적 요구에 알맞은 융통성과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8],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과정이자 능력으로 보고 있다[9]. 또한 갈등과 혼란 등 위험

요소에 둘러싸인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적응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점관점 차원에서 자아탄력성이 연구되고 있다.

#### 4. 자아탄력성과 청소년 비행

청소년 자아탄력성과 비행에 대한 연구에서, Kirby와 Fraser(1997)[46]은 청소년의 적응능력(resiliency)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1].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내재화·외현화의 문제행동이 높고[47],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등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이루어졌고[48],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비행, 폭력, 범죄, 정신적 장애등의 사회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결과를 갖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49-51].

한편,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청소년의 여러 가지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중재요인으로 보고, 김현순(2005)[16]은 자아탄력성을 불안정한 애착과 부적응간의 중재요인으로 연구되었고, 학업 스트레스나 자살과 같이 삶의 위험요인으로부터도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2]. 박서연과 정영숙(2010)[5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고, 여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같은 내재화된 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성에서도 청소년들이 지닌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김교현 외(2005)[54]도 초등학교 학생의 시험스트레스에서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를, 김윤희·황순택(2003)[47] 연구에서는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비행성향을 연구한 김미예·박완주(2008)[55]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변인인 자아탄력성이 문제행동을 줄이는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해경(2010)[56] 연구에서도 환경의 위험요인

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행동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되어 자아탄력성을 매개요인으로 보고,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고[그림 1], 한편 학교환경 위험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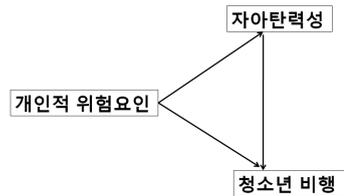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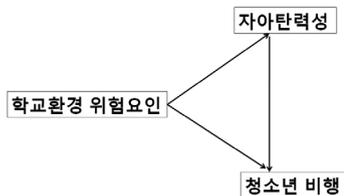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 2. 연구도구

##### 2.1 개인적 위험요인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개인적 위험요인 척도는 김동일·홍성두(2006)[57]에 의하여 제안된 청소년 위기평가 척도를 수정한 윤은희(2007)[58]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위험요인에는 우울(6문항), 불안(5문항), 공격성(7문항), 부정적 자존감(4문항), 신체적 자아(5문항), 흡연음주(3문항), 회피중심(6문항)의 요인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적 위험요인의 신뢰도는 0.93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위험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학교환경 위험요인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학교환경 위험요인 척도는 김동일·홍성두(2006)[57]에 의하여 제안된 청소년 위기평가척도를 수정한 윤은희(2007)[58]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교환경 위험요인에는 학업성적(4문항), 학교흥미(3문항), 교사 무관심(4문항), 방과 후 시간(3문항)의 요인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환경 위험요인의 신뢰도는 .0.82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환경 위험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자아탄력성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성영순(2012)[59]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탄력성의 신뢰도는 0.92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청소년 비행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청소년 비행 척도는 박기성(2007)[60]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비행의 신뢰도는 0.86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비행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부산, 대전, 제주, 경남에 위치한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들이었고, 무응답자나 일부분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3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152명 학생 중 61명(40.1%)은 남학생이었고 여학생은 91명(59.9%)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0명(19.8%)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응답자 149명 중 중학교 3학년이 39명(26.2%)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학년이 28명(18.8%), 고등학교 1학년이 26명(17.4%), 중학교 1학년이 24명(16.1%), 고등학교 2학년이 17명(11.4%), 고등학교 3학년이 15명(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인 응답자가 78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무교인 응답자가 55명(35.9%)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은 불교가 14명(9.2%), 천주교가 5명(3.3%), 그 외에 기타가 1명(0.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형태는 총 응답자 수 145명 중 자가 라고 답한 조사대상자가 69명(45.1%)으로 독보적으로 가장 많았고 월세, 전세, 기타는 각각 27명(17.6%), 21명(13.7%), 19명(12.4%)순으로 상대적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미응답자가 8명이었는데 조사대상자가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세한 주거형태 내용을 잘 몰라 응답하지 못 한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형태는 양부모 가정의 조사대상자가 78명(51.0%)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의 조사대상자가 47명(30.7%)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조손가정이 12명(7.8%), 3세대 가정이 6명(3.9%), 그 외에 기타 6명(3.9%)이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52)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자	61(40.1)	학력	중1	24(16.1)
	여자	91(59.9)		중2	28(18.8)
주거 형태	자가	69(45.1)		중3	39(26.2)
	전세	21(13.7)		고1	26(17.4)
	전·월세	9(5.9)		고2	17(11.4)
	월세	27(17.6)		고3	15(10.1)
	기타	19(12.4)	가족 형태	양부모	78(51.0)
	종교	기독교		78(51.0)	한부모
천주교		5(3.3)		조손가정	12(7.8)
불교		14(9.2)		3세대	6(3.9)
종교없음		55(35.9)		소년소녀	0(0)
기타		1(0.7)		기타	6(3.9)

## 2. 개인적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개인적 위험요인,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표 2]을 보면, 개인적 위험요인( $\beta=-.38, p<.001$ ), 자아탄력성( $\beta=-.23, p<.001$ )은 청소년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개인적 위험요인과 청소년의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61]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의 결과를 검증하기 전 기본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분산팽창지수(VIF)와 공차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산팽창지수는 10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공차한계는 .1보다 커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VIF가 1.105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 10 이하의 값을 나타냈고, 공차한계는 .905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계수를 살펴본 결과 1.4387로 가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61], 첫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 독립변인인 개인적 위험요인이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eta=-.31, p<.001$ ).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경로를 확인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개인적 위험요인이 종속변인인 청소년 비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냈다( $\beta=-.31, p<.001$ ).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종속변인인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 개인적 위험요인( $\beta=-.38, p<.001$ )과 매개변인 자아탄력성( $\beta=-.23, p<.05$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히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공식으로 매개효과 ab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61-63].

Sobel Test결과 Z값은 3.13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p<.001$ ). 이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하여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

## 3. 학교환경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학교환경 위험요인,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표 3], 학교환경 위험요인( $\beta=.51, p<.001$ ), 자아탄력성( $\beta=.38, p<.001$ )이 청소년 비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3]의 결과를 검증하기 전 기본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VIF가 1.357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 10이하의 값을 나타냈고, 공차한계는 .737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

표 2. 개인적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준거변인	예언변인	B	SE	$\beta$	t	F
1	자아탄력성	개인적 위험요인	-.123	.03	-.31	-3.866***	14.949***
2	청소년비행	개인적 위험요인	-.098	.03	-.31	-3.909***	15.282***
3	청소년비행	개인적 위험요인	-.120	.03	-.38	-4.696***	12.156***
		자아탄력성	-.186	.07	-.23	-2.875**	

\* p<.05, \*\* p<.01, \*\*\* p<.001

표 3. 학교환경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준거변인	예언변인	B	SE	$\beta$	t	F
1	자아탄력성	학교환경 위험요인	-.626	.08	-.52	-7.409***	54.893***
2	청소년비행	학교환경 위험요인	-.291	.07	-.31	-3.995***	15.959***
3	청소년비행	학교환경 위험요인	-.473	.08	-.50	-5.911***	18.807***
		자아탄력성	-.297	.07	-.38	-4.435***	

\* p&lt; .05, \*\* p&lt; .01, \*\*\* p&lt; .001

하고자 Durbin-Watson계수를 살펴본 결과 1.386로 가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독립변인인 학교환경 위험요인이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eta=-.52$ ,  $p<.001$ ).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환경 위험요인이 종속변인인 청소년 비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냈고( $\beta=-.31$ ,  $p<.001$ ),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종속변인인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 학교환경 위험요인( $\beta=-.50$ ,  $p<.001$ )과 매개변인 자아탄력성( $\beta=-.38$ ,  $p<.0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공식으로 Z검증을 실시한 결과 Z값은 6.08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p<.001$ ). 이는 학교환경 위험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하여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된 것이다.

## 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 청소년 비행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 청소년 위험요인과 비행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위험요인( $\beta=-.31$ ,  $p<.001$ )과 학교환경 위험요인( $\beta=-.52$ ,  $p<.001$ )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둘째, 개인적 위험요인

( $\beta=-.38$ ,  $p<.001$ ), 자아탄력성( $\beta=-.23$ ,  $p<.05$ )은 청소년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환경 위험요인( $\beta=-.50$ ,  $p<.001$ ), 자아탄력성( $\beta=-.38$ ,  $p<.001$ )도 청소년 비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이 개인적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행동 간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역시 학교 환경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행동 간에서도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험요인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어느 정도 비행행동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비행, 폭력, 범죄, 정신적 장애 등의 사회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고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상황적 요구에 알맞은 융통성과 문제해결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위험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자아탄력성이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중재효과를 연구한 박서연과 정영숙(2010)[53]연구나, 청소년들이 지닌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고를 감소시킨다는 고재홍과 윤경란(2007)[17]연구, 시험 스트레스에서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를 연구한 김교현(2005)[54]연구, 그리고 Kirby와 Fraser(1997)[46]가 연구한 청소년의 적응능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와 동일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비행의 예방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적 위험요인이나 학교환경 위험요인 비행에 정적 상관관계에서 청

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되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아탄력성 척도[64]의 하위요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하위요인에 대한 실증적 개입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으로 규명된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은 가정환경과 지역사회 위험요인은 연구되지 않았으나, 각각의 위험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자아탄력성외에도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중시와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무분별한 폭력과 유희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비행이 점차 저연령화, 재범화, 사회로부터 격리 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강점 관점 차원에서 긍정적 요인을 규명하여 개입하므로 바람직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으로 한정하였고, 범위 또한 부산, 대전, 제주, 경남에 위치한 복지시설이용 청소년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많은 무리와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표본 집단을 확대하여 복지시설 이용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일반화될 수 연구가 된다면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비행을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도와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김태균,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가족 친밀도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제4권, 제2호, pp.137-155, 2007.

[2] 여성가족부, 2013년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2013.

[3] 이은경, 지승희,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 “청소년 비행 위험요소·보호요소 척도의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2호, pp.57-70, 2003.

[4] 조계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가정환경(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 홍미란, *부모·포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 장정현, 고재홍,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희망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18권, 제2호, pp.101-116, 2010.

[7] 강명희, 이수연, “희망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9권, 제4호, pp.281-302, 2012.

[8] 박연수,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9] 이예승,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0]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70, pp.1067-1079, 1996.

[11] 이희연,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383-420, 2005.

[12] 한상철, 이수현, “청소년 비행 관련 요인들의 집단간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제3권, 제1호, pp.1-14, 2006.

[13] 김진석, “청소년 비행유형과 관련 요인”, 학교사회복지, 제25권, pp.311-332, 2013.

[14] 양종국, 김충기,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10권, 제2호, pp.101-121, 2002.

[15] 이석형,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

- 인”,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pp.55-76, 2007.
- [16] 김현순,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7] 고재홍, 윤경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1호, pp.185-212, 2007.
- [18] 이주연, 장성화, “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치료학회지, 제4권, 제1호, pp.41-53, 2013.
- [19] 조계연, 이은희,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1호, pp.79-106, 2007.
- [20] 한상철, *청소년학: 청소년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2004.
- [21]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8.
- [22] 김준호,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9.
- [23] J. E. Donovan, R. Jessor, and F. M. Costa, “Adolescent health behavior and conventionality-unconventionality: An extension of problem-behavior theory,” *Health Psychology*, Vol.10, pp.52-61, 1991.
- [24] R. Jessor and S. Jessor,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Academic, 1977.
- [25] 지승희, 이은경, 이지은, 최수미, 정찬성,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종단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 [26] J. Polland, R. F. Catalano, J. D. Hawkins, and M. Arthur, “Development of a school-based survey measuring risk and protective of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populations. Manuscript under review,” *Journal of School Health*. Vol.60, pp.64-105, 1997.
- [27] B. E. Compas, B. R. Hinden, and C. A. Gerhardt,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46, pp.265-293, 1995.
- [28]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29]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 증상 공중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27-144, 2003.
- [30] J. D. Coie, N. F. Watt, J. D. Hawkins, J. R. Asanow, H. J. Markman, S. L. Ramey, Shure, and B. Long, *The Science of prevention : A Conceptual framework and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Vol.46, pp.1013-1022, 1993.
- [31] J. D. Hawkins, M. W. Arthur and R. F. Catalano, *Preventing substance and abuse*, In M. Tonry & D. P. Farrington (Eds),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Crime and justice*, 19. (pp.343-427).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32] E. G. Sharp, *Epidemiology of gangs, level of association of risk factors member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2001.
- [33] D. A. Butcher, *The relationships among engagement in youth development program,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problem behaviors: An exploratory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University, 2000.
- [34] 권지은,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35] 김장대,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36] 유성경,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 [37] M. Rutter,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E. Rahdert, D. C. & I. Amsel (Eds.) *Adolescent*

- drug abuse: Clinical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pp.7-38, 1990.
- [38] J. H. Block and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Vol.13, pp.39-101, 1980.
- [39] N. Garmezy,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s.),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 Supplement, Oxford, England: Pergamon, No.4, pp.213-233, 1981.
- [40] 오순옥, *중학생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과 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41] 허정선, *가족의 애착, 귀인양식 및 자아탄력성이 표출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42] 이진성, *정서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능력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43] J. H.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70, pp.349-361, 1996.
- [44] 이은미, 박은진,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1호, pp.3-24, 2002.
- [45] 장진아, 신의천,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3호, pp.569-592, 2006.
- [46] L. D. Kirby and M. W. Fraser,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SW Press, pp.10-33, 1997.
- [47] 김윤희, 황순택,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2권, 제2호, pp.343-362, 2003.
- [48] 장경문,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143-161, 2003.
- [49] 원형중, "청소년의 중독성 물질남용, 여가참여, 여가권태, 여가만족의 인과모형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제12권, pp.46-57, 1995.
- [50] S. E. Iso-Ahol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creat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0.
- [51] 이진호, 김문희, 최덕목, 김기범, "청소년의 여가활동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자살위험간의 관계", 한국운동재활학회지, 제4권, 제2호, pp.41-55, 2008.
- [52] A. S. Masten and J. D. Coatsworth,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Vol.53, pp.205-220, 1998.
- [53] 박서연, 정영숙,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7-32, 2010.
- [54] 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제1호, pp.113-126, 2005.
- [55] 김미예, 박완주,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 아동간호학회지, 제14권, 제4호, pp.415-422, 2008.
- [56] 양해경, *환경의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57] 김동일, 홍성두, 청소년 위기 평정척도 개발연구, 한국교육학회 2006년 춘계 학술대회 교육심리학회, 경인교육대학교, 2006.
- [58] 윤은희, 위기 청소년 위험요소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59] 성영순,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자아탄력성 및 성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60] 박기성, 가족구조, 가족기능 및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과 범죄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61]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62] D. P. Mackinnon, C. M. Lockwood, J. M. Hoffman, S. G. West, and V. Sheets,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Vol.7, pp.83-104, 2002.
- [63] K. J. Preacher and A. F. Hayes,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Vol.36, No.4, pp.717-731, 2004.
- [64] 주소영, 이양희, "청소년용 탄력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pp.103-139, 2011.

저 자 소 개

박 선 아(Sun-Ah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현재 :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척도개발, 장애인복지

이 미 림(Mi-Rim Lee)

정회원



- 2011년 8월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현재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조사방법론

최 재 영(Jae-Young Choi)

정회원



- 2014년 2월 :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현재 : 구세군유지재단법인 하늘 사랑교실 시설장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실천